

◆ 평화오(彭浩) “동아시아 ‘공공지(公共知)’로의 접근”

8 월 상순, 아즈미 국제교류재단의 주최로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이라는 시리즈의 두 번째 포럼이 ‘몽고 내습과 13 세기 몽골 제국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기타큐슈시(北九州市)에서 개최되었다. 한 · 중 · 일과 몽골의 4 개국의 역사가들이 모여 다양한 측면에서 몽골제국사, 특히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필자는 한 사람의 역사 연구자인 동시에 본 프로젝트의 기획에도 참여하였기 때문에 다방면에 있어서의 다양한 소감을 느꼈다. 이에 본 감상문의 집필을 기회로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이번 회의는 단순히 ‘몽고 내습’이라는 키워드의 국제연구집회가 아닌 하나의 주제 혹은 한 가지 소재의 검토를 통해 국민국가의 역사 서술과는 다른 시각에서 인류의 역사를 그려 나감으로써 국민국가 사관의 영향으로 경직화되어 있는 역사 인식의 오류를 정정하고 정치 수단화된 역사 인식의 문제로 인해 저해되고 있는 국가 간의 관계 및 국민 간의 관계 개선에 이바지해 나가고자 하는 큰 문제 의식을 내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회의 중 몇몇 참가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 한 · 중 · 일 3 자 또는 이 중 두 나라 사이의 역사를 둘러싼 ‘대화’가 최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그 중에는 이미 잘 알려진 정부 주도형 대화와 더불어 개별 역사 테마 및 연구 방법, 사료의 이용 방법 등을 둘러싼 전문성 높은 대화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방향과 목표가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미타니 히로시(三谷博)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참가자 사이의 관계가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나빠질 것인지를 감안한다면 민간 차원의 ‘대화’의 용이함을 더욱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민간 차원의 연구집회는 개별 주제의 토론과 전문 지식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나오기 쉬운 반면 인문 연구자의 ‘버릇’ 또는 ‘타성(惰性)’이 관여되기 때문인지 관심이 있는 테마에 열중한 나머지 그 내용의 사회적 의의에 대해 깊이 있는 고찰을 거치지 않고 전문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의가 어떻게 공통의 역사 인식 촉진에 활용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 소홀히 취급될 수 있다. 또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연구 보조금을 통한 장기간의 공동 연구가 곤란해져 어중간한 형태로 끝나버리는 ‘대화’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류제(劉傑) 선생님이 초안에 쓰신 포럼의 취지문 ‘지(知)의 공유 공간’, ‘지식의 플랫폼’이라는 키워드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지(知)’의 의미는 광범위하며 적어도 ‘지혜’와 ‘지식’ 양자의 의미를 포섭하고 있다.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역사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널리 이해시킴으로써 국민국가의 한계와 역사 인식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모아나간다는 데에 그 진의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 차원의 논의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 간과하기 쉬운 부분임으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가필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회의 중에 언급된 몇 가지 논점에 대한 소감을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몽골 임팩트’의 평가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발표자인 윗카이치 야스히로(四日市康博)씨의 발표에는 몽골 제국의 동아시아 진출의 전체상(全体像)이 알기 쉽게 그려져 있다. 다른 발표자의 구체적인 논의에도 나타나 있듯이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몽골적인 요소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세계로 퍼져나가는 면이 있는가 하면 중국을 지배하고 주변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일부 지역에 중국화를 초래한 면도 있다. 이처럼 ‘몽골 임팩트’가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던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

최근의 ‘신청사(新淸史)’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청나라의 통치자는 중국의 황제인 동시에 다양한 면모를 통해 지역과 민족에 대해 다른 지배 구조와 논리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는 역사상(歷史像)이 제시되고 있다. 청나라와 비교하면 몽골제국사는 몽골어로 된 사료가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관련된 부분은 주로 한문 사료로 기록되어 있고 현존하는 사료도 한문으로 쓰여진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로 인해 하나의 중국 왕조인 ‘원나라’의 이미지는 정착되기 쉽지만 몽골인의 주체성 및 몽골제국의 다원성은 표면화되기 어렵게 되었다. 최근 스기야마 마사아키(杉山正明) 선생님들의 논문에서 다양한 몽골제국 역사의 역사상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번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을 듣고 점점 더 감명을 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류제(劉傑) 선생님이 전체 토론 시간을 통해 정리한 여러 논점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번 주제에 해당하는 시대는 중국 역사에 있어서의 몽골의 지배와 몽골 제국의 일부로서의 중국 지배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공공지(公共知)’로서 거론할 때는 어떻게 언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종래와 같이 중국 역사의 한 시대로서 ‘원사(元史)’를 거론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이를 뛰어넘어 동아시아의 문맥 또는 유라시아의 맥락에서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도 거론해야 한다는 중층적(重層的)인 서술

기법이 거자오광(葛兆光) 선생님의 발언을 통해 제시되었다. 국민국가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즉시 해소될 기색이 보이지 않으므로 국민국가 사관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중층적인 역사 서술을 통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다차원의 역사상을 교과서에 포함시켜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공공지(公共知)’의 구축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리라 사료된다.

또한 일차 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몽골제국사 연구는 어떤 식으로 과거와 대화하여 사실을 탐구해 왔는가 하는 점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각가의 발표를 통해 편찬물의 사료에 대한 비판, 비(非) 문자 사료를 통한 접근, 인류 사회의 ‘상식’과 역사 배경을 근거로 한 추론 등의 창의력이 강구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루고자 하는 시대와 지역의 다양한 역사가들의 대화를 통해 방법론에 있어서도 서로 자극을 주고 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곧 또 다른 의미에서의 ‘공공지(公共知)’로의 접근으로 이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다.

<彭浩 (평 · 하오) Peng_Hao>

오사카시립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준교수. 전공은 일본근대사, 동아시아 국제무역사. 2012 년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수료(문학 박사). 일본 학술진흥회 외국인특별연구원 · 도쿄대학 사료편찬소 특임연구원을 거쳐 현직. 주요 연구 성과로는 저서 “근세 청일 통상 관계사”(도쿄대학출판회, 2015 년) 등이 있음.